



즐기면서 배우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북 영어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우리나라 초등영어 프랜차이즈 시장에 심상찮은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초등원생의 절대적 감소와 젊은 학부모의 교육관 변화로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수많은 학원장들의 호소가 깊어지는 상황.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서 깊은 영어 프랜차이즈, 리틀팍스어학원을 만났다.

진심으로 아이만을 생각하는 영어교육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육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고강도의 학습은 영어뿐만 아니라 학습의지 자체를 꺾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영어교육 방식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끊임없이 '치치지 않고 꾸준히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추구해온 기업이 있다.

2003년부터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온 리틀팍스어학원(대표 김원재)이다.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로 보는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로 학습콘텐츠 시장의 문을 두드린 리틀팍스.

애니메이션으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김원재 대표의 욕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믿음 덕분이었다.

"1990년대 제가 MBA 유학을 갔을 때 저희 아이들도 2년 반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했죠. 당시 주변에서 '고생해서 익힌 영어인데 퇴행하면 어떡하냐'는 우려와 함께 학원에 다니며 영어공부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어동화책을 꾸준히 접하게 하고 미국에서 녹화해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등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잃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을 써주었지요."

영어동화책과 애니메이션만으로도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은 두 자녀들은 TOEFL 만점, 민속사관고등학교 진학,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물리토론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거머쥐는 등 영어에만 몰입해도 쉽지 않을 눈부신 성과를 보였고 현재는 미국에서 원어민과 다름없이 글로벌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중이다. 이는 당장의 암기한 단어 개수나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 덕분이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지금의 초등영어교육시장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 나아가도록 알려주기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전체에 변화가 필요하고 리틀팍스어학원이 그 변화에 앞장서려 합니다."

영어 프랜차이즈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선언한 리틀팍스어학원은 이미 13년 전부터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소문이 퍼지며 가맹학원을 늘려나가고 있었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오래 가는 초등 영어프랜차이즈의 대명사로 불리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는 원장들이 선택하는 학원으로 이름을 높인 것.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대치동에 위치한 리틀팍스어학원 직영점은 지난 5년간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시기별 이슈에 휘둘리는 학원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onics부터 해야 합니다', 'NEAT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젠 내신대비가 더 중요 합니다' 하는 식이죠.

생각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자기만의 주장과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오히려 쓴 실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영어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에 대한 고민이 우선입니다. 근본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사가 지녀야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요?"

리틀팍스어학원에서는 최소 연 2회, 본사의 부담으로 전국 가맹원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학원간 생각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학원시장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리틀팍스어학원의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